

나 동양의 동화적(同化的) 천관

The Eastern Assimilative View of Heaven

목차

1. 천(天) 개념의 이중성
2. 신(神) 개념의 구분
3. 동양의 삼재관: 동화적(同化的) 천 관
4. 응축적(凝縮的) 지관과 접화적(接化的) 인간관
5. 서양 사상과의 비교
6. 음양오행과 상관적 사유
7. 동양의神明 체계
8. 천지지용(天地之用)과 12운성
9. 유불선과 천지지용
10. 결론 및 의의

천(天) 개념의 이중성

동양의 천 개념은 두 가지 의미로 구분되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천지로 구분된 후의 천: 천지 중 하나로서의 천으로, 성리학에서는 이법천(理法天)으로 불리며 이치와 법칙의 측면이 강조됩니다.

둘째, '천외천'으로서의 천: 천지를 낳은 무극, 태극의 천으로, 하늘 위의 하늘을 의미하며 만물의 근원적 존재입니다. 동학사상에서는 상제 또는 천주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천 개념의 중의적 사용은 동양 천관, 지관의 논의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천외천(天外天)

하늘 위의 하늘
무극태극의 천
천지를 낳은 근원



천지의 천(天)

천지 중 하나로서의 천
이법천(理法天)
법칙과 이치의 하늘

신(神) 개념의 구분

동양 사상에서 신(神) 개념 또한 천(天)과 마찬가지로 중의적으로 사용됩니다.

상제(上帝): 천외천에 대응하는 신으로, 천지를 만든 궁극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동학사상에서는 '천주(天主)'라고도 표현합니다.

신명(神明): 천외천이 만든 천지 안에서 천지를 운행하는 주체로서의 신을 의미합니다. 음양오행의 법칙에 따라 각자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차이: 서양은 통일적으로 신을 천외천의 상제만을 주로 강조했으나, 동양에서는 신명을 포함한 복합적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동양의 신 개념

최고신(상제) + 천지 신명 + 조상신

서양의 신 개념

유일신(절대신) 중심

상제(上帝)

천외천에 대응하는 신
천지를 만든 근원적 존재
동학사상의 천주



신명(神明)

천지를 운행하는 주체
음양오행의 법칙에 따름
각자 고유영역 보유



조상신

동양의 삼재관: 동화적(同化的) 천관

삼재관(三才觀)이란? 천(天), 지(地), 인(人)의 관계를 설명하는 동양 철학의 기본 체계입니다.

동화적(同化的, assimilation) 천관: 천원지 방(天圓地方), 천도지 덕(天道地德)으로 대표되는 음양 원리에서, 천관은 이질적 요소를 하나로 통합하는 동화의 속성을 지닙니다.

동화는 자기를 중심으로 **외부를 향해 끊임없이 확장**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질적인 것을 통합하되 주종관계를 형성하여 질서를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양의 정신문화인 유불선 또한 동화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 도교 - 자연에 동화
- 유교 - 내면에 동화
- 불교 - 법에 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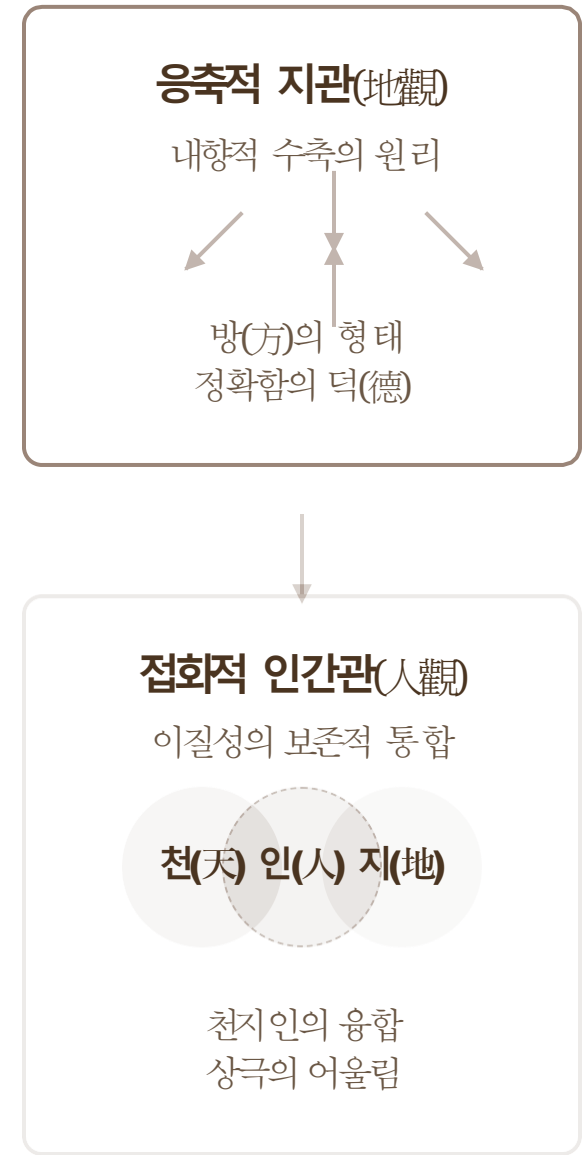
응축적(凝縮的) 지관과 접화적(接化的) 인간관

응축(凝縮)은 천원에 대한 지방, 천도에 대한 지덕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서로 다른 요소들이 한데 얹혀 굳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 **응축의 특징:** 동화와 달리 성분 자체가 바뀌지 않고, 이질적인 존재를 압축하여 하나의 작은 통일체를 이룹니다. 내부를 향해 수축하는 힘을 가집니다.

접화(接化)는 서로 대립적인 존재가 만나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으로, 두 존재가 동등하게 만나 이질성을 보존하는 통합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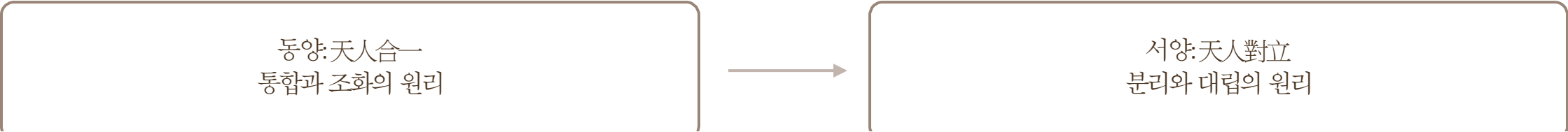
• **접화의 특징:** 상극의 어울림으로 혼합주의를 지향합니다. 천원과 지방의 융합, 천도와 지덕의 융합으로 인간의 속성을 형성합니다.



서양 사상과의 비교

동양과 서양의 천관지 관·인간관은 근본적인 사유방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동양 사상	서양 사상
사유 방식	생성론적 (生成論的)	존재론적 (存在論的)
천관 (天觀)	동화적 (同化的) 만물을 일체로 통 합	형상적 (形相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 상
지관 (地觀)	응축적 (凝縮的) 이질적 존재의 압 축	질료적 (質料的) 아리스토텔레스의 질 료
인간관 (人觀)	접화적 (接化的) 대립적 존재의 어 울림	성장론적 (成長論的) 개체의 성장과 발 전
특징	속성 중심 변화 상 관적 사유, 통합 지향	실체 중심 변화 이 화(異化), 분화(分化)



음양오행과 상관적 사유

상관적 사유는 동양 천관의 핵심적 특징입니다. 음양오행의 법칙은 물질뿐 아니라 신명(神明)에도 적용됩니다.

음양, 삼재, 오행, 팔괘는 기원은 달랐지만, 동일한 삼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으며 통합적 체계를 형성합니다.

상관적 사유는 실체적 서양 사유와 달리, **속성 중심의 천관**을 형성하여 만물과 신명에 일관된 법칙으로 작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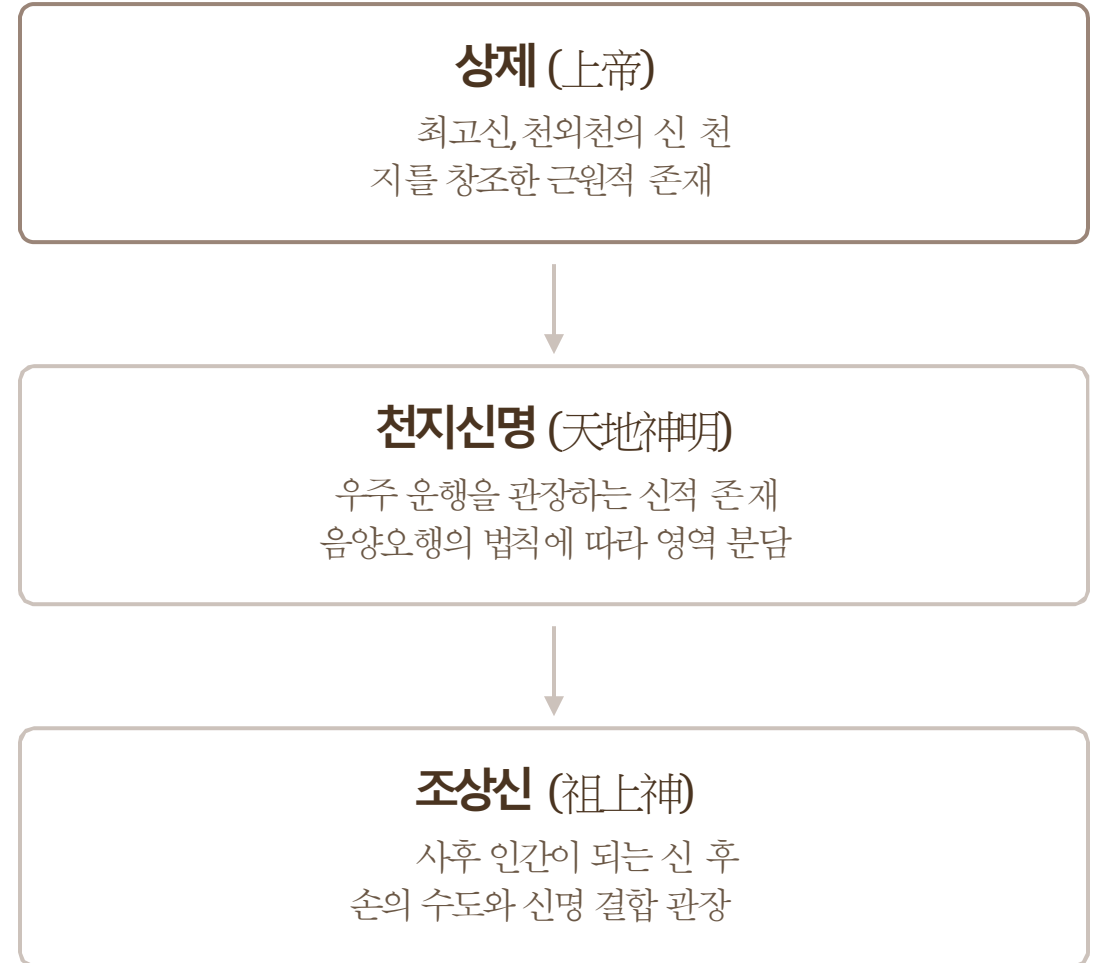
소강절의 가일배법(加一倍法)에 따라, 이들은 삼재를 세부적으로 해석하는 통합적 원리가 됩니다.



동양의 신명 체계

동양의 신 개념은 서양의 절대신과 달리 복합적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동양의 신은 **최고신(상제)**, **천지신명**, **조상신**으로 구분됩니다.
- 서양의 천사와 달리 **우주만물에 수많은 신 명이 존재**하며, 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음양오행의 법칙에 따라 우주를 운행합니다.
- 상제는 신명의 일에 간섭하지 않아, 동양에서 최고신이 **비인격화된 법칙**에 가깝게 인식되었습니다.
- 인간이 죽어서 되는 **조상신**은 천지 운행에 관여하지 않고, 인간 후손이 신명과 결합되는 것을 관장합니다.
- 모든 신명은 **음양오행의 질서**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천지지용(天地之用)과 12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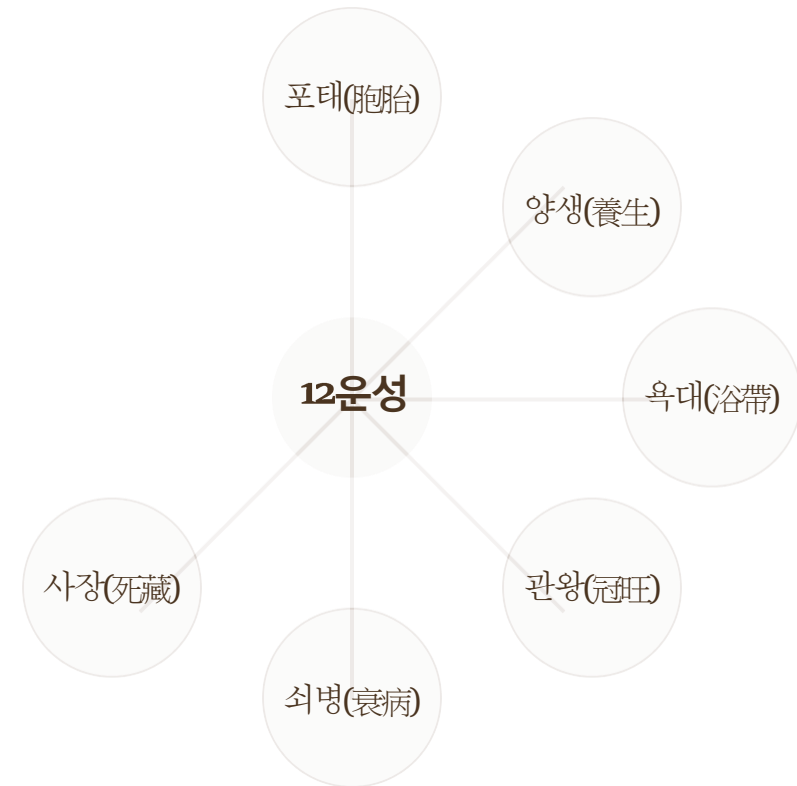
천지지용은 천지의 운행과 작용을 의미합니다.

천지에 배치된 10간(干) 12지(支)는 천지 화육(天地化育)을 위해 천지 승강(天地昇降)을 통해 천지 지용인 **12운성(運星)**의 작용을 합니다.

12운성은 다음과 같은 생명 순환의 단계를 나타냅니다:

- 포태(胞胎): 생명의 씨앗이 땅에 뿌려짐
- 양생(養生): 땅이 생명의 씨앗을 기름
- 욕대(浴帶): 씨앗이 하늘의 우로(雨露)로 목욕
- 관왕(冠旺):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
- 쇠병(衰病): 기운이 약해지고 병듦
- 사장(死藏): 죽음과 보존

이는 생명의 탄생과 성장, 소멸까지의 전 과정을 담고 있으며, 캠벨의 위질신화 12단계나 심우도와 같은 과정을 보여줍니다.



천지지용의 의미

10간 12지 가 물리학의 원자와 같다면, 천지 지용인 12운성은 원자가 결합되어 새로운 성질이 나타나는 분자와 같습니다. 천지의 운행이 단순한 기계적 작용이 아닌 성경신(誠敬信)에 의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유불선과 천지지용(天地之用)

동양의 사상체계인 유불선은 천지지용(천지의 작용)을 반영하여 형성되었습니다.

도교(선도): 천지의 포태(胞胎)를 반영한 허무의 사상으로, 자연에 동화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불교: 천지의 양생(養生)을 반영한 적멸의 사상으로, 법에 동화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유교: 천지의 욕대(浴帶)를 반영한 이조(以詔)의 사상으로, 내면에 동화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처럼 동양의 세 사상은 천지지용의 서로 다른 측면을 반영하면서도 모두 '동화'라는 공통된 특성을 지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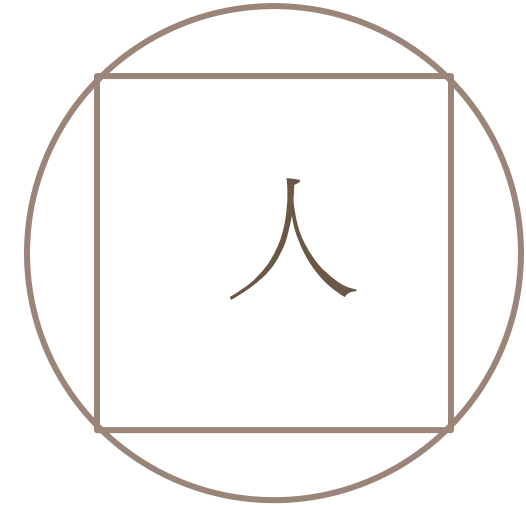
결론 및 의의

동양의 동화적(同化的) 천관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의미를 가집니다:

통합적 세계관: 동양의 천관은 만물을 일체로 통합하는 동화적 특성을 가지며, 분석과 지배보다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속성 중심의 사유: 서양의 실체론적 사유와 달리, 동양은 음양오행의 속성으로 변화를 설명하며 각 단위 내부에서 통일적 구조를 보여줍니다.

현대적 의의: 동양의 동화적 천관은 현대 사회의 기계론적 세계관의 한계를 넘어, 유기체적 자연관과 화해의 철학을 제시합니다.



천원(天圓) · 지방(地方) · 인화(人和)

- 동화적(同化的) 천관
- 응축적(凝縮的) 지관
- 접화적(接化的) 인간관